

CJ홈쇼핑 인터뷰 질문

중요한 포인트는 이혼 이후의 생계대책인데, 이혼비용에 대한
 가족해체로 인해 빈곤에 처해있는 빈곤여성가족 -> <나를 빈곤계층>
 쪽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

1.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빈곤 여성들의 심각성을 사례를 들어 설명해주세요. 생계형 빈곤의 심각성 빈곤여성

IMF 이후 신용불량, 이혼 등 가족해체로 인해, 절대 빈곤에 처해있는 빈곤여성가장들이 새로운 빈곤계층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습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여성가장 중 36%가 낮은 임금과 고용이 불안정한 임시직, 또는 일용직 근로자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빈곤여성가장들의 경우에는 오랜 가난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병이 들어 대부분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하기 때문에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사실 아프더라도 쉽게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소홀히 다루다가 가벼운 질환을 큰 병으로 전이시키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궁질환으로 한국여성재단에 지원을 요청한 사례 중에는 자녀를 키우며 열심히 살아가시다가 갑자기 자궁암 판정을 받고 임종을 기다리는데, 홀로 남겨지는 자녀를 걱정하며 눈물로 지새시는 절박한 사연부터 심하게 하혈을 하면서도 당장 병원 검진비가 없어서, 또 하루 쉬느라 일당을 못받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사연들도 있고, 또 질환으로 판정되더라도 치료를 위해서 입원비 감당이 안되기 때문에 집에서 주먹구구식의 치료를 하다 병을 키운 사례, 또 병을 어떻게든 치료해보려고 카드 대출을 받다가 매일매일 갚을 수도 없는 빚만 늘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2. 질병에 걸린 빈곤 여성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나? 빈곤여성 빈곤여성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시기에 질병에 걸려도 가난한 여성들은 국가지원을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고 해도 감가약이나 간단한 검사에만 지원을 하고 실제로 치료에 꼭 필요한 고가의 비용이 드는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분들도 역시 병에 걸리면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부담을 안습니다. 또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되면 그나마 검진비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액을 약간 상회하는 소위 차상위계층에 놓여있

는 빈곤여성가장들의 경우에는 심지어 건강보험료마저 연체하여 건강보험의 혜택도 받을 수 없어 병원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나마 검진을 해서 질환을 발견하고서도 수술비가 없어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 분들이 있는가 하면, 다행히 수술을 받았더라도 후속치료를 받지 못해 수술 이전보다 더 고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을 사회가 지원해줄 수 있는 아무런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3. 빈곤여성들을 위한 복지시설들은 얼마나 되나?

이혼 및 가정폭력 등 가정해체 요인은 점차 늘어남에도 이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나 시설들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빈곤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기관으로는 전국에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빈곤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후견기관 등이 있고, 시설로는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 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데는 역시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국가적으로도 사회적 서비스를 실행할 수 있는 이런 기관이나 시설을 늘려야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성건강가족